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편집인 이연택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1년 (단기 4344년) 6월 30일 (목) http://dongguk.or.kr 제223호

동 국 인 칼 럼

정년보장 교수도 연구논문으로 화답하라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 등록금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국민들의 소득과 물가 상승률에 비춰 등록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립학교 재단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운영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교수사회는 지금 건강한가?

그러나 그뿐일까. 등록금만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학의 최대 위기는 '정체성 상실'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대학이 사회와 국가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준엄한 물음이다. 그리고 물음의 맨 가운데에 '교수사회는 지금 건강한가'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습시간보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 재단과 사회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

정년 보장 교수들의 초라한 연구실적

몇 년 전 대학신문 학생기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마침 해외대학을 취재하고 돌아왔다. 학생기자들은 해외대학들의 변화 속도와 개혁의 강도가 우리 상상보다 훨씬 빠르고 높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제 대학은 미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무한 변신을 꾀하는 가장 역동적인 현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수들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수들을 독려한다고 했다. 우리 교수 사회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다른 교수들에 의해 얼마나 좋은 논문으로 평가받는지를 따지는 임팩트팩터(Impact Factor)를 중시한다거나 정년보장(테뉴어)을 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위해 전 세계 교수들에게 평판도 설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속된 말로 한국에서의 교수생활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면 외국에서는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네 학생들이 죽도록 공부해서 진학하면 정작 대학에서는 한없이 나태해지는 예전의 못된 풍토와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대학에서도 최근 들어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진지한 노력들을 비웃는 무리들이 엄존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른바 정년보장을 받은 원로급 교수들이다. 물론 그들 중에는 왕성한 연구활동과 치열한 자기 계발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년보장제도에만 의존한 채 자신의 공적과 세월만을 까먹는 교수들이 많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학평가에 동문들 관심 매우 높아

대학별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의 비율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를 넘는다고 한다. 이중 1년에 논문 한편을 쓰지 않는 교수가 상당수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론화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교수 사회가 실력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로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강사나 전임 시절에는 공정경쟁을 외치다가도 일단 정년 보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보신주의에 빠져 '침묵의 카르텔' 속으로 들어가는 실정이다.

우리 모교의 경우도 1년에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는 교수가 적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반증의 하나가 일간지의 국내외 대학평가 교수 연구논문 부문에서 30위권에 맴돌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모교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켜봤다. 몇 년 전 모교에서 교수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강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을 때도 앞날이 보장된 교수들은 집단으로 반발했다.

자신의 이해를 따지는 교수사회

교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수사회에 던져진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개혁은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어떤 사안이든 기득권층의 반발이 걸림돌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개혁의 꿈틀거림도 없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당시 총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무리는 대학의 중심이랄 수 있는 정교수들이었다. 오히려 젊은 교수들은 비판적 입장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중도적 혹은 유보적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한 젊은 교수가 외국의 주요 학술저널에서도 인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원로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요구를 거절한 후 이 젊은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미줄에 걸려 파닥거리는 곤궁한 처지로 몰렸다는 것이다. 교수 사회를 둘러싸고 들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는 지금 대학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정년보장은 신분보장이 아니다

자신의 학문 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교수사회,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무는 교수사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내정치에 훨씬 관심이 많은 교수사회. 한국 대학이 지닌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교수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교수의 정년 보장이 개인의 인생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은 시대정신을 뽑아내는 곳이다. 권위주의 시절의 대학을 위협한 것이 권력이었다면 지금의 대학을 위협하는 것은 자본이다. 돈을 둘러싼 거대한 역학 관계 속에서 스승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해관계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교수,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교수, 평생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매진하는 교수, 그들이 보고싶다.

분명히 많은 곳에 그런 스승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스승들은 학내정치에 서투르고 돈과 권력에 줄서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승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 첫걸음이 교수 사회의 철밥통을 깨는 일일 것이다.

시대의 물음에 당당하게 답하길

대학은 언제든 정의와 진리, 그리고 자유를 모토로 존재해왔다.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참인지를 따지고,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우리대학 만해광장의 한 구석에 남아 교정을 바라보는 동우탑(東友塔)은 그 자랑스런 상징이다. 물론 좋은 대학을 이루고자 하는 꿈은 평가의 숫자놀음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평가마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꿈마저 사라질 것이다. 동국대학이 시대를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혁명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한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교수사회의 혁신일 것이다. 교수들은 시대의 물음에 주저 없이 당당하게 답해야 한다. 교수 사회가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리고 공동선과 시대정신으로 깨어있기를 바란다.

■김 택 근
(본회 홍보위원,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지·면·안·내 2면 정상영 고문, 모교에 20억원 / 6~7면 지부 · 지회 소식 / 9면 식품공학과 총동문회 탐방 / 10면 차 한잔을 나누며… 이정민 KBS 아나운서

넉달만에 2백30억원 모금

모교 제2건학기금 조성 활발

본회도 10억원 약정 동참

본회는 지난 5월 31일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있었던 '제2건학 리스타트 동국' 기금 모금행사에서 모교 제2건학기금으로 10억원을 약정하였다.

이 행사에는 본회 이연택 회장을 비롯 전순표, 원용선 고문 등 임원진과 동문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모교 측에서는 재단이사장 정련스님, 김희옥 총장 등 재단임원 및 교직원, 그리고 내외귀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연택 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 출신이신 김희옥 총장의 제2건학 실현을 위해 23만 동문의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한 일류 동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 새로운 개혁과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총장은 "리스타트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해 모든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모교는 이날 현장 모금행사를 갖고 김희옥 총장 취임 이후 4개월간 불교계와 동문들의 기부가 줄을 이으면서 제2건학기금 (약정액 기준)이 23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본회는 2011학년도 후배장학금 5억원과 동창회관 건립시 지급 기금으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약정, 기부했다.

장학금으로 100억원 푼다

모교 '반값 등록금' 해결책 발표

모교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6월1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4년간 모금할 제2건학기금 목표액 1000억원의 10%인 100억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과 평균평점 등을 고려한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기존의 가계곤란장학금(모범장학과 복지장학)을 내년까지 28억원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액 중 가계 곤란 장학금 수혜 비율이 지난해 5%에서 19%로 4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의 장학금 이중수혜를 허용,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을 확대한다. 학생 1명이 복지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경우 기존에는 두 장학금 중 높은 금액의 장학금만 수혜가 가능했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모두 받을 수 있게한 것이다.

본회 정상영 고문 모교에 20억원 쾌척

학교발전 염원 … 동문기부 줄이어

정상영 고문

본회 정상영 (55/61법학,KCC 명예회장) 고문이 지난 6월21일 모교에 제2건학기금으로 20억원을 쾌척했다.

정 동문의 이번 기금 전달은 모교에 현금 기부금액으로는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정 고문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았던 김희옥 동문이 모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제2건학운동을 선포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모교가 크게 발전할 것이는 기대감이 컸다"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그 동안 모교 발전기금 등으로 5억 4천만원을 기부해 왔다.

한편, 정 고문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모교 제2건학기금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 3월1일부터 6월25일 현재까지 5백만원 이상 기부, 약정한 동문 및 동문단체는 다음과 같다.(교직원 및 스님 동문 제외)

▲20억원=정상영 고문
▲5억원=김진문,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3억원=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2억원=구자선, 전순표
▲1억원=무역·국제통상학과동문회, 불교학생회동문회, 행정학과동문회
▲5천만원=서정호, 주혜정,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 총동문회
▲3천만원 이상=김홍기, 박준형, 송래섭, 최진식, 한만경, 교육학과동문회, 불교대학원CEO 13기
▲1천만원 이상=강태선, 고준석, 김태현, 나경미, 명호근, 문첩, 박종윤, 서유열, 손언승, 원용선, 이금비, 이기흥, 이인정, 이창민, 이황, 정부자, 정영두, 차민수, 최석권, 신용보증기금동문회, 최고위치안정책과정동문회
▲5백만원 이상=김기헌, 김삼철, 김성용, 김영순, 김은자, 김진선, 노준식, 맹용재, 박대신, 서상록, 성영석, 이성연, 이승복, 이운영, 정인악, 최영덕, 최준섭, 허수창, 허천택, 교육대학원 총동문회, 행정대학원87기 원우 일동

(*명단은 동국미디어센터 보도자료에서 발췌)

'행복한 동행'

모교를 명문으로 만듭니다.

MY PRIDE 동국!
모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에너지는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동문입니다!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의 자부심도 커집니다.

- CMS(자동이체) 출금방식은 알려주신 계좌 내용으로 총동창회 사무처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송금일은 매월 30일입니다.
- 임원회비를 CMS를 통해 분납하셔도 합니다.
- 관련 문의 및 개인정보 변경은 02)733-3993으로 연락주십시오.
- 장학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신청서(CMS)

성 명			E-mail	
졸 업 구 분	학과(대학원) 입학 년 / 졸업 년			
주 소				
전 화	자 택		직장	
후 원 종 류	□장학기금 □동창회관건립기금 □평생회비 □임원회비 □기타( )			
□ CMS통장 자 동 이 체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 핸 드 폰 요 금 이 체	통 신 사	□SKT □KTF □LGT	핸드폰번호	
□ 무 통 장 입 금 계 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 금 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납 부 금 액	□월1만원 □월2만원 □월3만원 □월5만원 □월10만원 □기타(월 원)			
의 견 란				

※ 이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02-733-3992)로 총동창회 사무처에 보내주십시오.

위와 같이 총동창회 후원금 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귀하

문 의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02)733-3991,3993 FAX 02)733-3992
주 소 : 110-718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단이사장 등 본회 고문 추가 추대

정련스님 · 김희옥 · 김희형 · 최규철 동문

정련스님 고문

김희옥 고문

김희형 고문

최규철 고문

본회는 회칙 제12조3항에 의거, 6월 30일자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스님과 김희옥 총장, 김희형 본회 지도위원, 최규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등 4명을 고문으로 신규 추대했다.

이번 고문 추대는 지난 3월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일부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1차로 4명을 그 대상자로 의결했다.

이번에 고문으로 추대된 정련스님은 2009년 6월30일 모교 재단이사장에 선출되었으며, 금년 3월에 제37대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었다.

김희옥 고문(68/72법학)은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거쳐 금년 3월1일부터 모교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희형 고문(56/60정치)은 효성중공업(주) 임원을 거쳐 조흥상호신용금고(주)대표이사, 온양개발(주) 제1관광호텔 대표이사를 지냈다.

최규철 고문(64/66정외)은 모교 경주캠퍼스 학생처장, 부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 9월부터 모교 재단이사를 맡고 있다.

단위동문회 임원 중심 '조직위원회' 출범

새 인물 영입 · 재정확보 등에 기여 다짐

정환민 조직담당 부회장

고용규 조직 1 부회장

주승균 조직 2 부회장

정산스님 조직 3 부회장

본회는 조직의 체계화와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8일 저녁 6시30분 사무처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정환민(65/69농학, 전 한서대 교수) 조직담당 부회장과 조직3담당 부회장 정산스님(88/92선학, 경국사 주지)을 비롯 학과·대학원동문회, 시·도지부동문회, 친목·직장별동문회 사무국장과 모교 협력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본회 신관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조직위원회 구성배경과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2시간 여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회 재정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과 임원구성의 재조정을 통해 총동창회와 회원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출발한 이번 조직위원회는 총 154개 지부(회)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조직 등록 현황 파악과 함께 현재 1,932명으로 구성돼있는 동창회 임원조직을 재정비하여 동창회 조직 보강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방법론과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환민 부회장은 회의진행 인사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모교의 제2건학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국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내 대학평가순위 상위 확보는 23만 동문의 염원인 동시에 총동창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며 목표"라고 말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초작업이 바로 조직위원회가 해야 할 몫이다. 우리 모두 소명의식을 갖고 중지를 모아 맡은 바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본 회의에 앞서 회장을 대신해 정환민 부회장과 정산스님이 교대로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또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노력·봉사할 수 있는 동문들을 총동창회 임원으로 적극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선후배가 함께하는 동창회, 살아 움직이는 동창회로 면모를 일신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24일 조직담당 부회장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정환민 동문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에는 고용규(70/74정외,(주)동우들 대표이사) 조직1담당 부회장, 주승균(82/92한의, 평강한의원 원장) 조직2담당 부회장, 정산스님(88/92선학, 경국사 주지) 조직3담당 부회장이 맡기로 하였으며, 간사는 신관호(69/73경제) 본회 사무국장으로 정했다.

〈조직위원회 위촉자 명단〉

■ 지역동창회

△강재웅(83/91산공, 경남지부 사무국장)
△고천석(76/83정외, 광주지부 사무국장)
△김광호(80/88회계,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박인호(85/93산공, 용인 사무국장)
△배기열(80/82체교, 전북지부 사무국장)
△윤광태(87/94관광경영, 직할 경주 사무국장)
△이종호(84/88무역, 경북·대구 사무국장)
△임대근(84/88국사교, 서울남부 사무국장)
△최영식(81/02국문, 부산 사무국장)

■ 학과·대학원동창회

△변충섭(79/86건공, 건축공학과 사무국장)
△송인모(83/90경행, 경찰행정학과 사무국장)
△안태호(85/92교육, 교육학과 사무국장)
△오선호(84/88영문, 영어영문학과 부회장)
△이경철(86/89일문, 일어일문학과 사무국장)
△이권하(76/83식공, 식품공학과 사무국장)
△정경훈(82/87경영, 경영학과 사무국장)
△정동진(86/93연영, 연극영화학과 사무국장)
△정시환(87/94법학, 법과대학 사무국장)
△강우춘(80/82행원, 행정대학원 사무국장)
△김두식(00/03언원, 언론정보대학원 총무)
△김지영(99/02교원, 교육대학원 사무국장)
△김희수(00/01사원, 사회과학대학원 총무국장)
△양재국(93/94불원, 불교대학원 사무총장)

■ 모교 조직

△이권학(86/92인철, 서울 대외지원실장)
△최정훈(74/78경행, 경주 발전협력실장)
△조성환(92/96법학, 서울 재직동문회 사무국장)

■ 직장 및 친목동창회

△윤정식(86/90역교, 국민은행 사무국장)
△정충래(78/85국교, 중등학교관리자 사무차장)
△강선중(84/91경제, 동국 7080 사무국장)
△이학균(77/81사교, ROTC 사무총장)
△조윤오(94/98경행, 여자총동창회 사무국장)

본회 자동이체서비스(CMS) 도입

각종 후원금, 매월 일정액 납부 길 열어

모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에너지는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본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로 총동창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총동창회 후원 CMS(통장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동문 회원들이 ▲후배 장학기금 ▲동창회관 건립기금 ▲평생회비 ▲임원회비 등을 후원, 또는 납부할 때 CMS 방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목돈으로 후원하였을 때의 개인 부담을 줄이고, 매월 꾸준히 일정액을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는 형태로 동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 금액은 월 1만원부터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과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의 참여는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동창회보 광고면 신청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본회는 이와 함께 핸드폰 요금 이체와 무통장 입금계좌 등을 개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CMS를 통해 납부한 장학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홍보위원 2명 추가

불교계 홍사성 · 서재영 동문

본회 홍보위원회(위원장=문병호 부회장)는 모교의 설립재단인 불교계와의 소통원활을 위해 홍사성(71/78불교)동문과 서재영(86/90선학)동문을 홍보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 동문은 불교신문 주필, 불교방송 방송본부장 등 30여년을 불교계 언론에 몸담아왔다.

서 동문은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불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동국인 골프대회 '대화합' 축제로 마무리

'MY PRIDE 동국'… 모교와 동창회가 하나되다

▲ 제5회 동국인 골프대회가 지난 5월 16일 60개팀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에 앞선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본회와 모교가 하나되어 공동주최한 '제5회 동국인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5월 16일 동문 및 모교 교직원 등 60개팀 240명이 참가, 역대 최고 인원을 자랑하며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금강CC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모교 개교 10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에는 각 학과와 대학원 동문회, 서울-경주의료원 교직원, 경남-경주-대구-대전 등 지역동문회, 중국동문회 등에서 골고루 참가하여 'MY PRIDE 동국'을 위한 대화합과 상생의 축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오전 11시부터 클럽하우스에 도착, 등록을 마치고 2층에 있는 대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었으며, 경기에 앞서 클럽하우스 스타팅라인 잔디밭에서 단체기념사진촬영을 가졌다.

이어 경기가 동, 서, 남코스에 한 홀당 2~3개조씩 사전 배치되어 낮 12시 30분 샷건 방식으로 동시 티업(Tee Up)되었다.

교직원·지방·해외동문 등 참가

이날 경기는 5시간 가량의 라운딩에 들어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굿샷'과 '화이팅'을 외치며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었다.

경기를 마친 뒤 시상과 만찬행사가 오후 6시30분부터 2층 대식당에서 시작되었다.

본회 이연택 회장은 시상식 인사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의 전례없는 대화합의 자리에 대성황을 이뤄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모두가 염원하는 동국 대화합을 모색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또 모교 김희옥 총장은 축사에서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교가 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오늘을 기점으로 모교 제2건학과 영원한 동국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시니어·일반부로 나눠 시상

이날 시상식장에서는 이연택 회장이 김희옥 총장에게 이번 대회에서 얻어진 수익금 3천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하자 참가자들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열렬히 환영, 공감을 표시했다.

행사비 아껴 학교 발전기금 3천만원

역대 최대인원 참가로 저력 과시

이어서 본회 전영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성적발표 및 시상이 있었다.

시상은 시니어부와 일반부 우승-준우승, 매달리스트, 롱게스트, 니어리스트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이 주어졌다.

이날 만찬 중에는 송석구 고문(사회통합위원장)과 민응기 동국의료원장, 신윤표 전 한남대 총장이 차례와 나와 건배 제의를 하며 동국사랑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TV 당첨받고 1천만원 기금 출연

만찬이 끝날 무렵 이뤄진 행운상 추첨은 LED TV와 LCD TV가 경품으로 나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과 기대를 모았으나 기이한 결과들이 속출했다.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이 협찬한 TV경품은 장영길 경주 대외협력본부장이 추첨에 나섰는데 당첨자가 롱게스트상을 받은 박승종(76/82임학)동문이어서 겹경사가 났다. 이어 국민은행장 민병덕(74/81경영)동문이 내놓은 LED TV(42인치)는 본회 권노갑 고문이 추첨한 결과 자신의 번호표를 뽑아드는 상황이 벌어져 탄성과 웃음이 터져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권 고문은 "기왕에 뽑은 행운상이니 기쁘게 받아가겠고, 오늘의 이 감사한 마음을 동국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참가신청기간 동안 모두 70여개팀이 접수하여 즐거운 비명이었다. 하지만 최대 수용인원인 60개팀으로 줄이면서 일부 동문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만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은 한결같이 "예년에 비해 참가자가 대폭 늘었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차분하고 수준높게 대회가 진행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차분하고 수준높은 대회" 평가

이번 대회에는 본회 권노갑 고문, 김동정 고문, 전순표 고문, 원용선 고문, 송석환 수석부회장, 한우삼 부회장, 구자선 부회장 등과 모교에서는 김희옥 총장을 비롯 조성구 경영부총장, 민응기 의료원장, 강태원 연구경쟁력강화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두루 참석하여 더욱 자리를 빛냈다.

■대회 입상자

△우승(시니어)=김문겸(64/68농경)
△우승(일반)=김종진(77/81체교))
△준우승(시니어)=이능희(60/65상학)
△준우승(일반)=권영묵(95경원)
△메달리스트=박득곤(73/80경행)
△니어리스트=조규진(95경원)
△롱게스트=박승종(76/82임학)

■현금 협찬해주신 분

△이연택(56/61법학) 총동창회장 =3백만원
△김희옥(68/72법학) 모교 총장 =3백만원
△송석환(64/68농경) 동진기업(주) 회장 =520만원
△서영준(64/68법학) 동양기업 회장 =520만원
△최준섭(05/07불원) 만복림 대표 =5백만원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사장-박상진)=5백만원
△형종호(56/61법학) 삼공기어공업(주) 회장=3백만원
△김오현(76/80체교) BK그룹 회장 =3백만원
△구자선(79/81경원) 자연과사람 회장 =2백만원
△강상근(83/87무역) 워터테크놀로지 회장=2백만원
△박종윤(56/59경제) 세창 회장 =1백만원
△김진문(64/71경영) 신성약품(주) 대표이사=1백만원
△손학중(65/69농경) (주)성문산업 회장=1백만원
△장한목(72/79무역)=20만원
△김덕경(76/80경행)=20만원

■물품 협찬해주신 분

△정상영(57/61법학) KCC 명예회장 =쌀 260포
△민병덕(74/81경영) 국민은행장 =42인치 LED TV 1대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 =32인치 LCD TV 1대
△홍파스님(63/67불교) 관음종 총무원장=떡 300팩
△이 황(72/80식공) 식공과동문회 회장 =여자화장품 30EA
△오정석(72/79농학) 새한상사 대표이사=맥주, 소주, 막걸리 각 10박스
△김은호(75/82경행) 서울신문 상무 =골프용품

‘추억의 남산길’ 걸으며 뜨거운 우정 나누다

▲ 남산 팔각정에서 ROTC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 행정대학원 동문과 가족들이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ROTC 50주년 ‘남산걷기대회’

ROTC 총동문회(회장=이영균 68/72 토목)는 지난 5월28일 ROTC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남산걷기대회를 원용선(59/63영문, (주)남양 이앤씨 회장) 총 명예회장과 이영균 회장, 성영석(67/71경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동문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산 일대에서 가졌다.

이날 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이 오전 10시 모교 팔정도에 모여 남산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 11시 남산 서울타워 앞에 총 집결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모두 함께 ‘동국대 ROTC 파이팅’을 외치며 ROTC 총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하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모교 상록원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동문간 친화의 시간을 가진 참가자들은 이어진 행운상 추첨에서 70여점의 푸짐한 상품을 놓고 기대와 탄성이 터지는 등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행정대학원 ‘남산걷기 행복모임’

행정대학원 총동문회(회장=김오현, 비앤디그룹 회장)는 지난 6월11일 행정대학원 교수, 동문, 선·후배와 가족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남산 둘레길을 걷는 ‘제2건학 총 동행가족 남산걷기 행복모임’을 가졌다.

“가족간 사랑과 우애를 나누고, 행정대학원 총 동문의 대화합을 통해 모교 제2건학에 동참한다”라는 취지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이 오전 10시 모교 본관 코끼리상 앞에 집결해 기념촬영을 하고 남산으로 출발해 10km로 뻗은 산책로를 걷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걷기모임에는 송일호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해 이재형(64/68불교), 연기영(71/75법학) 본회 상임부회장 등도 함께 했으며 오후 1시에 참가자 모두가 모교 상록원 2층 식당에 집결해 오찬을 함께 들며 서로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등 따뜻한 분위기 속에 뜻깊은 대회를 마무리했다.

4.19혁명동지회 윤성열 회장 연임

4.19혁명동지회(회장=윤성열 69/63상학, 동화기영(주) 대표이사)는 지난 5월3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윤성열 회장과 박부엽(59/63상학) 수석부회장, 상무위원회 박승정(59/65경제) 의장을 비롯한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원 단합과 친목을 겸해 가진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지난 3월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 윤성열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하고, 송용석(58/64경제), 김동출(59/63상학), 조태호(59/63경영) 회계감사를 연임시키는데 동의했다.

윤 회장은 인사를 통해“4.19정신으로 뭉친 끈끈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모교 사랑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자”고 당부하고 “우리의 정신을 역사 속에서 길이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불교대학원 CEO과정 친선 골프

동불 CEO(모교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총동창회의 제4회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6월1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CC에서 열렸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동불 CEO 총동창회의 구자선(자연과 사람 회장)명예회장과 명호근(성진지오텍 회장) 총동창회장, 염동삼(영진금속 회장)골프회장을 비롯해 동불 최고위과정 동문 1백여명이 참가하여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우의친선을 도모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동창회 대표로 이제곤, 정환민, 우태주, 김진억 상임부회장이 초청을 받아 자리를 함께하며 총동창회와 동불CEO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1년 서초지회 가족동반 야유회

서초지회(회장=문준수 69/74 인철)는 지난 5월 22일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에서 김성재(58/65정외) 고문, 정진영(58/65경제) 고문, 이광근(67/74통계) 고문을 위시한 동문 가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서초지회 가족동반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야유회에서 서초지회 동문 및 가족들은 위승현(94/98 전공) 동문이 완도에서 특별히 주문 배달해온 전복 등 푸짐한 먹을거리와 바비큐 파티를 즐긴 데 이어 ROTC 출신 동문들의 사병 대 장교단 친선 족구 대회가 벌어져 시종 활기차고 열띤 분위기 속에 단란한 한때를 보냈다.

친선 족구대회에서는 송인모(83/90 경행) 동문을 포함한 사병 출신들의 맹활약으로 사병팀이 장교단을 3:2로 눌러 이겼고 장교단의 내년 설욕전을 기대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야유회가 마무리되었다.

부산동국이사회 회장에 박광휘 동문

부산거주 동문들의 친목모임인 부산동국이사회(동국회) 2011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5월 9일 부산 부전동에 있는 부산동국이사회 사무국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박광휘(64/68농학)동문을 추대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박광휘 회장

이날 총회에는 전임회장 손승환(55/61정치)동문을 비롯해 부산지부 동창회장 정광훈(65/69상학), 부산불교인협회장 김창식(63/65국문), 동부산대학교 박진호(69/74행원)교수, 부산 한의사협회 전 회장 박진령(82/88한의) 동문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동국회의 방향 모색과 함께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이뤄졌다.

박광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부산동국이사회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동문은 부산지구 ROTC 산악회장을 지냈고, 현재 부산지부산악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교육학과 총동문회 단합대회

교육학과 총동문회(회장=강창호76/82교육, 시스코 금융사업본부 전무)는 지난 6월 26일 동문단합을 위한 남산걷기대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해 계획을 변경하고 모교사범대학 J211호실에서 강창호 회장과 조충미 부회장 등 임원진을 비롯한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학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토론을 가졌다.

지난 제222호 9면 기사중 대한민국ROTC 제2기 회장 전진표 동문의 입학/졸업년도를 ‘60/64임학’으로 바로잡습니다.

남산미디어포럼 창립 총회

초대 회장에 하동근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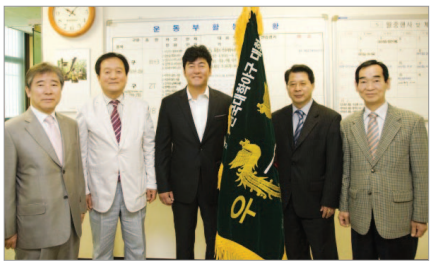
▲하동근 회장

모교 언론정보대학원 동문들과 교내·외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남산미디어포럼'이 지난 6월15일 저녁 앰버서더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하동근(00/03언원, 재능TV 대표이사)동문을 선출하는 등 임원 구성과 회칙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산미디어포럼은 향후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학문적 교류를 위한 사업 △정책 대안의 도출 및 이를 확산시키는 사업 △사회발전과 관련된 정책 연구 사업 △회보 발간 및 출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언론을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합뉴스 한상용(95/03일문)기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야구부 우승 격려금 전달



▲ (왼쪽부터) 본회 고용규 부회장, 전영화 사무총장, 윤재호 야구감독, 이우용 체육실장, 본회 신관호 사무국장

본회는 지난 5월24일 제4회 KBO 회장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모교 야구부를 방문, 격려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영화 사무총장은 이연택회장을 대신해 모교 야구부 윤재호 감독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달했다.

영남지역 체육대회 7개지부 참가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 우승 차지

제22회 동국인체육대회가 직할경주동창회를 비롯 부산동문회, 대구경북동문회, 경남동문회, 사화과학대학원동문회, 불교문화대학원동문회,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 등 모두 7개 지부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22일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배구, 줄다리기, 윷놀이 경기를 하며 시종 활기차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 동국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큰 축제 한마당을 펼쳤으며, 우승은 사회과학대학원동문회, 준우승은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 3위는 대구 경북동문회가 차지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본회 이연택 회장을 대신해 고용규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찰행정학과 심응석 회장 연임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회장=심응석)의 2011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4월29일 모교 상록원에서 전임회장을 지낸 한길성(1대, 1기), 전영화(6대, 3기)고문과 심응석 회장, 손창완(12기) 경찰대학장 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활동 보고와 회계감사 보고 및 회장 선임에 관한 건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던 이번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10대 심응석(10기)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발전기금 약정식과 더불어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동문들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신규 임용된 법조계 및 행정고시 합격 동문과 경찰간부로 임관된 동문들에게도 축하패를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동방회, DUBS에 방송장비 기증

동방회(회장=이재용, MBC) 회원들이 지난 6월14일 오전 모교 교육방송국(DUBS)을 찾아 학내 방송실습을 위한 방송 모니터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KBS 오강선(80/86영문, 콘텐츠 사업부장), 남철우(89/94농경, 대외정책팀), 윤재혁(96/03정외, 홍보실) 동문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기증된 장비는 학내 IPTV용 대형모니터 3대와, 방송 주조정실 모니터 8대 등이다.

'동방회'는 KBS와 MBC 근무 방송인 모임으로 지난해 두 차례 언론고시 특강을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언론고시 특강을 정례화해 하반기부터 방송연출, 카메라, 아나운서, 방송경영 등 실무 특강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목멱 살롱

'노블리스 오블리제'… 동국가족도 나설 때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이는 초기 로마시대, 왕과 귀족들의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희생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간의 보불전쟁, 세계 제1,2차 대전 때 맨먼저 전선에 투입된 영국의 초급장교와 병사들이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고교생들이었다. 지금도 이튼고교 교정을 찾아가면 고색창연한 묘비석엔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이튼고교 출신 전사자들 이름이 빼곡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묘비에 자기 이름을 초라하게 올리기 위해 장렬한 죽음을 택했을까. 아닐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이튼고교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참전했다. 6·25전쟁 때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 아들도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했다.

민주적 로마제국 시절, 귀족 등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확고했다.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벌인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전쟁 중 최고 지도자인 콘술(집정관)의 전사자 수만 13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정(帝政)로마시절,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귀족들이 부패 타락하면서 발전의 동력이 쇠퇴해 로마제국이 소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바로 진정한 전통적 보수의 가치다. 국가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 헌신, 봉사와 아량이라는 가치에 충실히 복속하는 이념이다. 그런데 한국에 보수주의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언필칭 배운 자, 가진 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체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지만 조직 및 개인이기주의에 빠져 폐쇄적 배타적이다. 변화보다 현상유지와 수구적 멘탈리티에 익숙해 있다. 이타주의를 냉소하면서 가족우선주의에 빠져있다. 탈법 반칙 특권으로 권력과 부를 축적하지만 의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개발독재시절, 남북대결, 영호남 갈등의 지역패권주의에 기대 이익을 챙기는 부류들이다.

화해와 협력보다 긴장과 대결주의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쉽고도 편리하게 반대파를 누르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그런 방법이 동원됐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 국민 하나하나가 파편화되고 형해화되어버렸다. 아무리 단결하고 뭉치자고 해도 남의 이야기처럼 공허하다.

서구의 경우 지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을 본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기부행위는 그 전범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돼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반추해보면서 우리 동국인은 적어도 사회지도층의 의무에 충실한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계 홍
본회 홍보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전문위원

■ 식품공학과 총동문회

국내최초 설립학과로 식품업계 선도 역할

1대 회장 노완섭(1기)

2대 회장 이학태(2기)

3대 회장 조희재(3기)

4대 회장 장영상(6기)

5대 회장 배영민(8기)

6대 現 회장 이 황(12기)

사무국장 이권하(16기)

1961년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모교 식품공학과는 1965년 첫회 졸업생 34명을 배출한 이후 2010년 47회 졸업생까지 총 2천300명의 동문을 배출해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국내 유수의 식품업체를 비롯해 각급 연구기관과 학계 등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 학과의 명맥을 이으며 식품공학과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식품공학과 총동문회는 특히 선·후배간 유대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비롯, 우수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의 확대와 취업지원을 위한 멘토링 강화 등 식공인들의 활로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동문단합의 중추적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과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마음이 분주한 총동문회의 현 임원진들을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식품공학과의 내력과 동문활동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회원 수는 얼마나 되며 동문들의 참여도는 어떠한가?

— 우리 학과의 졸업생수는 2천300여명으로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동문들의 참여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학과총동문회는 선·후배가 격의없이 마음을 열고 교류할 수 있는 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전체 동문들이 한가족처럼 어울리고 단합하는 강력한 결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반세기 역사를 가진 학과동문회로서 자부심도 크시리라 본다. 동문들 중 특별히 학과를 대표해 자랑할만한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한다.

— 식품업계를 비롯한 관·학계의 요직에서 많은 분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KAIST 의생명대학원 조교수 이흥규(91/95)동문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육기동(1기. 61/65, (주)팔마 대표), 박용철(2기. 62/69, (주)호전실업 대표), 이유상(6기. 66/73, 작고), 송래섭(6기. 66/73) 같은 동문들은 기업인으로 성공하여 물심양면으로 학과 및 동문회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식공관련 연구소 개소준비에 기천만원씩의 기금을 쾌척, 동문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시다.

장학사업 확대 · 취업지원 멘토링 등 활동

학교 · 동문회가 브랜드 상품 공동개발에 힘 모아

▲ 식품공학과 총동문회 사무실 개소식에 함께한 임원진들 (2009년 6월 14일)

■사회적 성공을 거둔 동문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리라 본다. 선·후배간의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우리 학과총동문회는 2006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식공의 날' 선포를 계기로 '제1회 식공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선·후배와 재학생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선배 초청 강연회'와 '식품공학과 전시회'를 매년 열고 있다. 선배 초청강연은 특히 식품의 전문성을 가진 명장들로 구성돼있어 자랑할 만하다. 또 금년에는 모교 1학년 재학생들을 위해 모두 5차에 걸쳐 '식품산업에 관한 자유 주제'를 타이틀로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이드하는 Mentoring을 정식교과과목으로 채택, 시행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 견주어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 총동문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 후배지원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적이라는 점이다. 후배들의 식품전문 동아리를 지원할 경우 '만들고' '먹는데' 드는 재정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랜 노 하우에서 축적된 아이디어 지원을 비롯해 창업에 필요한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 가운데 몇분만 소개한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 송래섭(66/73, 바산고려홍삼(주)), 배영민(68/72, (주)하나향료 대표이사), 조영장(74/81, 신라명과 대표이사), 박근영(73/78, 네슬레 청주공장장), 권기성(77/81, 식품의약청 팀장), 박재구(76/83, (주)훼미리마트 부사장), 고민호(77/84, (주)농심 상무), 김세일(76/80, 해태연구소 부서장), 이상윤(80/84, (주)풀무원 상무) 동문들이다.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명성을 쌓은 분들로 후배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도에는 '불교가공식품연구소'를 개소해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 유일한 불교종립학교인 모교와는 어떻게 연관짓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 식품생명공학과의 유병승교수가 소장을 맡아 2008년 3월에 설립한 '불교가공식품연구소'는 국내에 불교와 접목된 인문사회 관련 연구소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계 관련 연구소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불교가공식품연구의 기초자료 마련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개소하였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사찰음식을 현대화하고 대량화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이들 소재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현재로서는 가공식품개발에 주력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불교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불교적 이미지의 가공식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교 포교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향후 학교를 홍보하고 학교 브랜드 상품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 개설이 3년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사업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연구개발의 차원에서 이미 연(蓮)을 이용한 '연 파운드케익'과 '연 쿠기'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연'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앞으로 불교적 이미지를 가진 차잎을 선택하여 차(茶)를 개발할 계획이다.

■학과 총동문회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매년 '식공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학과의 명예를 빛내고 위상을 높인 인물들을 선정, '자랑스러운 식공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또 후배 MT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선배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고, 후배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작년 졸업생의 취업률이 100%였다. 취업률 향상은 바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이며 교내에서도 학과의 우수성과 연관되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다. 우리 대학 식품공학과가 대외적으로 우수학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많은 동문들이 업계의 전문분야에서 제 기량을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위 일류 출신들만 들어 간다고 하는 몇몇 대기업에도 후배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 '食'의 개념은 이제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일차원적 개념을 넘어 '문화'로, 또 나아가 '공학'으로 정착한 지 오래다. 이런 시대에 전문 식품공학인의 사회적 수요는 더욱 커지리라 예상되며, 그 중심에서 우리 동문들이 눈부신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이정민 KBS 아나운서

뉴스 · 연예 · 시사 · 교양 프로그램 누비는 팔색조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KBS1 뉴스광장' 4년째 진행

- 2004년 광고홍보학과 졸업
- 2005년 KBS 공채31기 아나운서 입사
- 2006년 해피선데이 하이파이브, 스펀지, 좋은나라 운동본부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메인 MC
- 2008년~ '뉴스광장' 메인 앵커 생로병사의 비밀, VJ특공대 등 진행

국민연금 홍보대사

4년째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있는 KBS 뉴스광장의 메인앵커가 우리대학 동문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KBS 간판 아나운서인 이정민(99/04 광고홍보)동문.

선배들 입장에선 햇병아리 동문이긴 하지만 동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이정민 동문의 행보는 대단하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3시에 출근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KBS 1TV 뉴스광장을 진행하고 연이어 '생로병사의 비밀' 녹화를 마치고 나온 이정민 동문을 지난 6월 9일 KBS 앞 여의도 공원에서 만났다.

'선배님-'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특유의 발랄함과 톡톡 튀는 씩씩함이 여의도 공원의 신록만큼이나 풋풋하고 생기있다.

"하늘같이 훌륭하신 대선배님들도 많은데 제가 인터뷰를 하니 쑥스럽네요." 하면서 시작된 대화는 대학시절과 졸업 후 사회생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됐다.

새벽 3시 방송국 도착해 대본 연습

금요일 밤 인기 프로그램 'VJ특공대'에서는 톡톡 튀는 멘트로 현장감을 시청자에게 전해주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진지한 태도로 건강정보를 전달하며, '뉴스광장'에서는 설득력있고 분명한 어조로 신뢰감을 주는 이정민 동문은 가히 팔색조 그 자체다. 연예프로그램에서부터 시사, 교양 프로그램, 뉴스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아나운서란 직업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열심히 물장구를 쳐야 하는 백조 같다"고 말하며 항상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야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녀는 6시 새벽 뉴스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고수하고 있으며, 항상 새벽 3시에 미리 방송국에 도착해 대본 연습을 할 정도로 자기 일에 철저한 노력파다.

지금의 '이정민 아나운서'로 거듭나기까지 그녀에게는 대학시절에 접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녀는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던 친구와 매우 친했는데, 그 친구의 덕분에 본격적인 아나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친구와 함께 대운동장에서 복식호흡과 발성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재도전으로 일궈낸 '꿈'

현재 아나운서 입사시험의 경쟁률은 1000 : 1에 이를 정도로 아나운서란 직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망과 열기가 대단하다. 제2의 이정민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그녀는 "소위 말하는 스팩이 좋은 것도, 얼굴이 뛰어나게 예쁜 것도 아닌 제가 아나운서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모든 경험들을 소중히 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KBS 아나운서 첫 입사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후 몸담았던 SBS 자회사 골프 채널에서 실전 경험을 익혔고,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KBS에 재도전한 끝에 "진정한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획없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정해서 계획적인 도전을 해야 하죠"

활짝 웃는 부드러운 모습 가운데 당찬 의욕과 자신감이 느껴져왔다.

"열심히 하는 것이 모교 빛내는 길"

이정민 동문의 모교 사랑은 대단하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3시까지 보도국으로 출근해야하는 앵커로서의 바쁜 일상을 4년간이나 이어오면서도 빼놓지 않는 게 바로 모교행사고 후배 챙기기다. 후배들을 위한 취업특강, 목멱가요제 진행 등등 모교와 후배들이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간다.

여의도 방송사에는 많은 모교 출신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학번만 어림잡아 40여명. 이들이 모여 동국방송인회(회장=이재용 84/88수교, MBC아나운서부장)를 만들었고, 모인지 7년째 된다. 이정민 동문은 그 모임의 총무를 맡아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토대가 된 것이 바로 동악에서의 청년시절이었습니다. 아직은 햇병아리 동문이지만 제 앞에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모교를 빛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선배님들!"

방송인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이 필수

방송계 진출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한마디 조언을 부탁하자 책을 많이 읽고 방송프로그램을 꾸준히 챙겨보는 습관을 비결로 귀뜸한다.

"내가 저 프로그램의 진행자라면, PD라면 이렇게 할텐데라며 스스로 기획을 해보는 연습과 훈련은 방송국 입사준비의 기본이죠. 입사시험시 면접관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동문은 차를 마시고, 트위터를 하고, 수다떨기를 좋아하는 평범함을 즐기지만, 일단 마이크를 잡으면 프로 앵커로서의 면모를 한껏 펼쳐놓는다.

현재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녀는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동창회가 젊은 동문들이 자주 모이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한다면 23만 동문 모두가 최고의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라며 얼굴을 붉혀 웃는 이정민 동문.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KBS 뉴스광장 앵커를 4년째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그녀는 젊고 발랄하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내일이 있다.

이 동문을 비롯한 방송계의 동국대 남산 코끼리들은 오늘도 여의도의 바람을 가르며 모교 동국의 이름을 찬란히 빛내고 있다.

■남 철 우

(본회 홍보위원. KBS 대외정책팀)

'VJ 특공대' '생로병사의 비밀' 등서 진가 발휘

방송인 동문모임 총무로 적극 활동하기도

"프로앵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계속"

▲ KBS 1TV 뉴스광장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민 동문 (오른쪽)

서울문화연구원 고문에 추대

본회 이연택 회장이 서울이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가도록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인 '서울문화연구원'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지난 5월9일 저녁 프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갖고 새로 출범한 서울문화연구원은 서울 구석구석의 지역문화, 순수예술, 대중예술, 스포츠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되며 '함께 즐기자' '서로 섞이자' '새로 만들자' '많이 나누자'가 슬로건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재선

구재태(63/67경행, 본회 부회장)동문이 지난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대연회실에서 개최된 제35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정기 전국총회에서 제20대 중앙회장에 재선돼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3년.

48년 역사의 재향경우회는 전직 경찰관들을 주축으로 회원수만 146만명에 이른다.

구 동문은 경찰공제회 감사, 경찰청 보안국장, 충남 경찰청장, 기흥골프장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 취임

(주)FDK 회장 박영민(46/52영문, 본회 지도위원)동문이 지난 4월20일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4년.

늦깎이 시인으로 데뷔

봉화 정토원장 선진규(55/59불교, 본회 고문)동문이 지난 6월 1일 발행된 2011 '한국현대 시문학' 여름 제10호에 '봉화산 사자바위'를 발표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모교 객원교수, 경상남도 도의원, 조계종 신도회장, 한국불교문인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 취임

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송석환(64/68농경)동문이 지난 6월16일 경북 김천고등학교 유지법인인 학교법인 송설당교육재단의 제6대 재단이사장에 취임했다. 김천중·고를 졸업한 송 동문은 송설총동창회장과 재단법인 송설장학회 이사장, 학교법인 송설당교육재단 이사등을 역임했다.

송동문은 현재 동진기업·상진기업(주) 회장과 옥산빌딩 대표이사로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각각 동진기업 법인을 두고 있다.

묘각사 81주기 창건법회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63/67불교, 본회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낙산 묘각사에서 묘각사 창건 81주기 창건법회 및 '숭인동 주민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독거노인 등 50여 가정에 라면 1박스씩을 증정하고 위로했다.

KON TV 성남방송 회장 취임

본회 지도위원 임선교(58/63경제)동문이 지난 5월 26일 새로 개국하는 KON TV 성남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봉정식

한성대 교수인 황진수(65/69행정, 본회 부회장)동문이 지난 6월2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은 정년퇴임기념식에서 제자들로부터 기념논문집을 봉정받았다. 황 동문은 한성대 기획처장, 총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인테리어업체 회장 취임

강진원(65/72경영, 본회 상임이사)동문이 지난 5월 1일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인넨아키 회장에 취임했다. 강동문은 80년대 초에 본회 사무차장을 역임했으며, 대명콘도 영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창업경영자 대상 수상

비앤디 그룹 회장 김오현(76/80체교, 본회 상임부회장)동문이 지난 5월 28일 동덕여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창업학회가 주는 제7회 한국창업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모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사)살기좋은 나라 家國不二 이사장(문화체육관광부), 폐기물자원화 포럼 운영위원장(환경부) 등을 맡고 있다.

동국문학상에 이혜선 · 박혜경 동문

동국대 출신 문인 모임인 동국문학인회(회장=이상문)가 제정, 운영하는 동국문학상에 시인 이혜선 동문(76/80국문)과 평론가 박혜경(79/83국문) 동문이 선정됐다.

이혜선 동문은 1981년 월간 〈시문학〉추천으로 등단해 한국 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한국문학비평가협회 부회장, 계간 〈자유문학〉의 추천위원으로 있다.

시집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이'외에 '유치환 詩의 효용론적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박혜경 동문은 198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당선돼 소천 비평문학상, 팔봉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계간 '문학과 사회' 편집위원을 지냈고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 '문학의 신비와 우울' 등의 평론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지난 5월25일 저녁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있었으며 이날 〈동국시집〉 30집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포천에 오픈 스튜디오 개설

가농조형연구소대표 전종무(81/85미술, 본회 이사)동문이 지난 6월 10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에 '갤러리 전 오픈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전 동문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부문 대상, 미술세계 작가상 등을 수상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개발사업 상징조형물 국제공모에 당선됐다.

이스타항공 일본노선 취항

본회 상임부회장 이상직(82/89경영)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이 오늘 7월 1일부터 국내 저가비용항공사 최초로 인천-도쿄(나리타) 노선 정기편을 취항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학술세미나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평화통일분과 위원장 이광우(86/93국문)동문이 지난 6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과 정책 제안'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동문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재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86/90행정)동문이 최근 열린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8대 한국치안행정학회장으로 재선됐다.

한국철쭉전시회 열어

한국철쭉연구회 회장 배영민(68/72식공, (주)하나향료 대표이사, 본회 부회장) 동문이 지난 6월 7일 서울 서초구청 1층 로비에서 제11회 한국철쭉전시회를 열었다.

동국경찰학원 개원

설재윤(91/95경행)동문이 지난 5월16일 동작구 노량진동 JH빌딩에 경찰시험 준비생을 위한 전문학원인 동국경찰학원을 개원했다. 설 동문은 강남 학원가 등에서 이미 경찰시험 전문강사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개 명

▲권태업(81/85사학, 한국 동북아문화정책연구소 소장)=권철중으로 바꿈

결 혼

▲하근수(67/71법학)=5월 14일 장남 원석(미카엘)군 결혼

▲황경환(87/89교원, 본회 상임이사)=5월 21일 장녀 영수양 결혼

▲서상열(96/99행원)=5월 21일 장녀 진아양 결혼

▲박종국(73/81경행)=5월 28일 장남 은수군 결혼

▲윤인상(68/72경영, 전 도로공사)=6월 4일 장남 형진 결혼

▲손창완(74/78경행, 경찰대학 학장)=6월 4일 차녀 희선양 결혼

▲서동필(71/78경제)=6월 5일 장녀 혜미양 결혼

▲이강석(01/03불문원)=6월 11일 장녀 소령양 결혼

▲서승삼(71/78경제,녹십자MS 사장)=6월 12일 아들 영득군 결혼

▲홍사성(71/77불교,불교신문 논설위원)=6월 18일 장녀 결혼

▲이승영(64/68상학/동국대 교수)=6월 25일 장녀 내아양 결혼

▲이광호(74/79행정, 유일기연 부회장)=7월 9일 차녀 소희양 결혼

부 고

▲강우춘(80/82행원,행정대학원동문회 사무국장)=5월 8일 모친 별세

▲심현식(59/63상학, 본회 감사, 공인회계사)=5월 10일 모친 별세

▲김기석(65/69상학)=6월 18일 부인 별세

▲유한웅(84/88행정, 용인동문회 산악대장)=5월 30일 본인 별세

일산 바이오메디 캠퍼스 개교

종합강의동 – 약학관 건물 들어서

모교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가 지난 5월19일 개교식을 갖고 바이오·약학·의학·한의학 분야를 융합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캠퍼스를 목표로 야심찬 새 장을 열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는 지난 2009년 8월 1단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지상 5층, 연면적 6400㎡ 규모의 종합강의동이 완공돼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한 약학대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2개 교양과목이 개설돼 수업중에 있다. 금년 8월에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2000㎡의 약학관이 준공된다.

모교는 2014년까지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등 바이오시스템대학 4개 학과를 이전하고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던 3학년이상 과정을 일산캠퍼스로 옮겨 캠퍼스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식사동 16만9000㎡에 병원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이 결집돼 의생명과학 특성화 교육여건이 조성, 재학생 2000명, 교수진 230명을 갖춘 캠퍼스로 조성될 전망이다.

'잘 가르치는 대학 BEST 11'

경주캠퍼스, 국고지원금 126억 받아

경주캠퍼스가 지난 5월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지방캠퍼스 최초로 동시 선정되어 2011년 약 51억5천만원, 4년간 총 126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교과부가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80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모교 경주캠퍼스는 3년 연속 선정되어 1년간 26억5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또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도 모델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 대학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이 11대 1에 달한 가운데 경주캠퍼스가 '잘 가르치는 대학' 11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올해 25억원을 지원받고, 앞으로 4년간 총 1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사범대 교원양성 선도대학 또 선정

사범대학(학장=고진호 교수)이 2011년 교원양성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9일 모교 사범대학 등 8개 대학을 '2011년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으로 선정하고 올해에만 총10 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범대학은 이에 따라 올해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2014년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받게될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범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실시한 교원 양성기관 평가결과에서 우수(A)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교원양성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일산병원 응급의료기관 최우수

'진료의 질' 부문서 높은 평가 받아

모교 일산병원(병원장=이진호)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0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실시한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 평가(2009년 8월~2010년 7월 기준)는 필수영역 충족여부(시설, 인력, 장비 등)와 응급의료 질(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정,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등)로 나눠 실시됐다.

일산병원은 이중 급성뇌혈관질환자 뇌영상검사 신속성과 활력징후 이상 환자의 모니터링 적절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진료질 평가 종합결과에 따른 경기도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기타 우수한 성적을 거둔 17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성적과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200여억원을 지원한다.

혜초 스님 발자취 따라가다

KBS 동행취재 · 동아닷컴 등 학내외 중계

모교 전략홍보실(실장=윤재웅 교수)이 기획한 제1기 혜초원정대가 오는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총 19일간 현지 활동에 들어간다.

일반 학생들과 동국미디어센터 기자들로 구성된 혜초원정대는 중국 서안을 출발점으로 둔황, 투르판, 쿠얼러, 쿠차, 카슈가르, 탁실라 등을 취재하며 목숨을 걸고 진리를 구하려 했던 혜초스님의 구법행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지난 3월 2일 김희옥 총장은 취임 직후 학생들과 함께 '실크로드와 둔황전'을 관람하고 학생들이 혜초스님과 같은 열정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략홍보실은 1300여년 전 약관의 나이로 구법여행을 떠난 혜초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혜초원정대를 본격 기획, 구성한 것이다.

이번 취재는 동아일보 동아닷컴을 통해 학내외에 모두 중계될 예정이다. 또 모교 교육방송국 학생국원으로 구성된 촬영팀을 현지에 파견해 HD영상으로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게 된다. 이렇게 촬영된 HD 다큐멘터리 '혜초원정대'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중국 취장TV등에 공급돼 우리대학의 교육철학과 학생기자들의 역량을 알리게 되며, KBS의 방송팀도 둔황까지 동행취재하며 우리 혜초원정대를 취재할 계획이다.

김소연 교수

국고지원 25억원 수주

의생명공학과 김소연 교수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중 ERL(환경부 지정 연구실)에 선정돼 총 5년간 25억원을 지원받는다.

ERL은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로 단위 실험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원천연구 과제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에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3년간 2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몽골에 사막화 방지숲

10ha에 1만그루 조림행사

모교 박정극 학술부총장을 비롯한 몽골방문대표단 7명이 지난 5월 23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북쪽으로 85km 떨어진 바춤버(Batsumber)지역을 방문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비의 숲'(10ha. 99,000㎡ 규모) 조성 기념식을 갖고 조림행사를 가졌다.

모교는 앞으로 이 자비의 숲에 매년 1천 여 그루씩, 2015년 까지 모두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비누, 화장품 등과 주스, 비타민 등의 제품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교는 이번 '자비의 숲' 조성을 계기로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 계획'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방문,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남양주시와 생태 MOU

20만평에 '수목원' 조성

김희옥 총장은 지난 4월 12일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과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일대 학술림을 숲 치유 생태교육 특성화 수목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모교는 전체 학술림 부지 250여만평 중 20여만평을 수목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법화경 신앙과 사상' 출판

인도철학과 김선근 교수의 정년퇴임 및 '법화경 신앙과 사상' 출판기념 법회가 지난 6월 18일 오전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많은 불자와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공안행정학회 하계 세미나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으로 있는 경찰행정학과 최응렬교수가 지난 5월 28일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 조직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1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취임

경영학과 유창조 교수가 지난 5월 24일 열린 한국소비자학회 정기총회에서 2011년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금액 · 성명 가나다순.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각종회비 납부안내

• 외환은행 150-22-01536-0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1년 4월 28일 ~ 2011년 6월 26일 접수분〉 (가나다 순)

자승스님 (09/09불원)
고 문 100만원

강상근 (83/87법학)
부회장 100만원

김동길 (57/60경제)
부회장 100만원

김진억 (73/80경영)
부회장 100만원

김윤묵 (91/93행원)
부회장 100만원

박 순 (64/68불교)
부회장 100만원

배영민 (68/72식공)
부회장 100만원

법조스님 (70/73불교)
부회장 100만원

변기태 (79/85경영)
부회장 100만원

본각스님 (72/76철학)
부회장 102만원

서영준 (65/68법학)
부회장 100만원

성영석 (67/71경영)
부회장 100만원

송석환 (64/68농경)
부회장 100만원

안병호 (78/79경영)
부회장 100만원

윤부성 (61/63생물)
부회장 100만원

이광호 (74/79행정)
부회장 100만원

이상윤 (93/98일원)
부회장 100만원

이상직 (82/89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용우 (91/94정치)
부회장 100만원

이재창 (04/06행정)
부회장 100만원

장장순 (58/65법학)
부회장 100만원

전태성 (53/57경제)
부회장 100만원

정연황 (57/62정치)
부회장 100만원

정인악 (55/60화학)
부회장 100만원

차해진 (76/83경행)
부회장 100만원

최상철 (64/71경영)
부회장 100만원

홍선기 (69/73정외)
부회장 100만원

이제곤 (64/68경제)
감 사 100만원

고문 분담금

▲원용선(59/63영문) 50
▲이민휘(52/56정치) 30

지도위원 회비

▲김영근(46/49문학) 30
▲김희형(56/60정치) 30
▲남균우(58/63법학) 30
▲명성스님(64/68불교) 30
▲박충환(55/59경제) 30
▲신상두(60/64법학) 30
▲신정균(89/90언원) 30
▲이기화(57/59경제) 30
▲종상스님(86/88행원) 30

부회장 회비

▲유영수(62/66행정) 50
▲현각스님(78/82인철) 50

상임이사 회비

▲각현스님(93/95행원) 20
▲계성스님(78/81승가) 20
▲구태회(87/93행원) 20
▲김덕경(76/80경행) 20
▲김삼현(59/65불교) 20
▲김상배(85/92물리) 20
▲김용길(61/65법학) 20
▲김운락(00/04법학) 20
▲김윤종(85/86경영) 20
▲김창기(95/97경영) 20
▲남재우(74/78정외) 20
▲노병현(64/71사학) 20
▲박하서(97/01사원) 20
▲변태원(61/63법학) 20
▲선상규(65/72응생) 10
▲송재영(84/92사학) 20
▲유정우(58/63법학) 20
▲윤만진(94/96경영) 20
▲이계홍(65/69국문) 20
▲이승주(89/96농경) 20
▲이영자(62/63불교) 20
▲이원희(86/90경영) 20
▲이지원(94/99지리) 20
▲이청준(67/71경행) 20
▲이학송(78/82불교) 20
▲장성호(99/02사원) 20
▲장용철(60/66농학) 20
▲정성채(67/69정외) 20
▲정연찬(02/03사원) 20
▲지만호(86/94행원) 20
▲지형운(77/84식공) 20
▲최수길(60/67국문) 20
▲허길남(63/67응생) 20
▲허정식(71/73경영) 20
▲홍석표(75/82경영) 20

이사 회비

▲강길용(87/91경제) 10
▲강전희(78/81경원) 10
▲강희석(97/00호텔경영) 10
▲김난영(82/86경행) 10
▲김동길(93/95경영) 10
▲김문겸(64/68농경) 10
▲김병수(83/87회계) 10
▲김영희(71/79식공) 10
▲김정환(56/60국문) 10
▲김환성(61/ 상학) 10
▲민 해(98/03국교) 10
▲박명준(71/78건축) 10
▲박봉준(77/85경제) 10
▲박상문(64/66국문) 10
▲방원석(54/58정치) 10
▲배종하(00/90경영) 10
▲백경선(80/84불교) 10
▲백대운(70/74전자) 10
▲서동부(92/93사원) 10
▲신쾌호(57/61법학) 10
▲양수성(61/65경영) 10
▲양승조(59/62경제) 10
▲오택원(73/77국문) 10
▲유병돈(73/80공업경영) 10
▲윤동규(79/81물리) 10
▲윤인상(65/72경영) 10
▲이덕기(76/83국교) 10
▲이은정(84/88경행) 2
▲이인진(57/63법학) 10
▲이장화(84/88무역) 10
▲이종관(63/67통계) 10
▲정한영(64/68농경) 10
▲정현필(75/79사학) 10
▲조화제(00/02국원) 10
▲최은정(84/88미술) 10
▲하한기(77/84건축) 10
▲한경구(61/64임학) 10
▲한대현(89/91경원) 10
▲한종옥(65/67경제) 10
▲황이주(89/94행정) 10

일반 회비

▲강광식(82/86경제) 2
▲강군식(69/77행정) 2
▲강병도(78/84공업경영) 2
▲강성수(88/95건축) 2
▲강영덕(66/74상학) 2
▲강윤희(85/89전자) 2
▲강정훈(89/95산공) 2
▲강해성(70/77전기) 2
▲경영대학원동문회 2
▲고옥자(79/83영문) 2
▲고재창(84/88전자) 2
▲고희신(86/92의학) 2
▲공세택 2
▲공원식(98/00행정) 2
▲구광모(74/80행정) 2
▲구상량(58/62법학) 2
▲구윤회(92/94불교) 2
▲구창완(68/72사학) 2
▲구필희(86/92경영) 2
▲권석웅(64/71농학) 2
▲권수영(62/63법학) 2
▲권순일(79/87경영) 2
▲권오진(81/88회계) 2
▲권정의(98/00경영) 2
▲권혁용(90/94선학) 2
▲김경락(72/79전기) 2
▲김광섭(61/65법학) 2
▲김광언(71/79화공) 2
▲김광제(66/70경제) 2
▲김광환(64/69경제) 10
▲김교철(81/88경영) 2
▲김기정91(91/97행정) 2
▲김기홍(90/97영문) 2
▲김농주(83/90경행) 2
▲김덕수(63/67농경) 2
▲김도훈(90/96의학) 2
▲김동욱(74/78농생) 2
▲김득규(59/64사학) 2
▲김맹성(58/61경제) 2
▲김민수(84/88경영) 2
▲김병구(61/63경제) 2
▲김상원(92/99전기) 2
▲김선기(75/82전자) 2
▲김선형(67/71경제) 2
▲김성찬(95/99전자) 2
▲김성희(62/64철학) 2
▲김연대(75/82경영) 2
▲김영묵(77/82토목) 2
▲김영묵(77/82토목) 2
▲김영미 2
▲김영삼(61/65경제) 2
▲김영석(81/85국사) 2
▲김영식(88/93회계) 2
▲김영전(84/91경제) 2
▲김영호(74/81회계) 2
▲김영훈(81/87농경) 2
▲김영희(05/07불문원) 2
▲김용범(81/88건축) 2
▲김유진(87/91연영) 2
▲김윤숙(75/79무역) 2
▲김인규(60/64정치) 2
▲김인식(64/71경제) 2
▲김인식(69/73법학) 2
▲김인재(65/69불교) 2
▲김인현(81/85선학) 2
▲김인환(74/80건축) 2
▲김임주(63/66상학) 2
▲김재화(77/83무역) 2
▲김정만(64/72정외) 2
▲김정만(58/62국문) 2
▲김정일(88/95회계) 2
▲김조영 2
▲김종선(78/82공업경영) 2
▲김 준(65/73통계) 2
▲김준헌(81/85경제) 2
▲김 진(89/95선학) 2
▲김진수(78/85행정) 2
▲김창식(63/65국문) 2
▲김창호(02/04행원) 2
▲김철만(77/86전자) 2
▲김철정(60/64연극) 2
▲김철중(78/83정외) 2
▲김추자(74/78승가) 2
▲김태성(59/63물리) 2
▲김태영(77/79건축) 2
▲김태환(60/64경영) 2
▲김현진(87/94법학) 2
▲김현팔(64/68국문) 2
▲김 호(78/84건축) 2
▲김환규(60/62정치) 2
▲김효성(84/91수학) 2
▲나경준(71/75경영) 2
▲나덕찬(84/88회계) 2
▲나유인(77/81경행) 2
▲남궁곤(83/91전자) 2
▲남금광(63/69상학) 2
▲남정철(56/61법학) 2
▲도상열(54/58수학) 2
▲마별성(83/90산공) 2
▲문동호(64/71화학) 2
▲문정숙(77/79가교) 2
▲민현석(61/65국문) 2
▲박노훈(72/76사교) 2
▲박명진(80/84물리) 2
▲박상훈(90/98경제) 2
▲박선규(60/63정치) 2
▲박수원(72/76국교) 2
▲박수창(57/61국문) 2
▲박순걸(59/63경영) 2
▲박여주(87/94행정) 2
▲박영길(61/66법학) 2
▲박영목(91/95산업안전) 2
▲박원식(04/05사원) 2
▲박응섭(50/52국문) 2
▲박점식(67/70정외) 2
▲박정규(84/92경행) 2
▲박정우(92/94상원) 2
▲박지환(60/64경영) 2
▲박창엽(72/80농생) 2
▲박태숙(03/05사원) 2
▲박필수(68/72자동제어) 2
▲박현우(00/04회계) 2
▲박희익(63/65상학) 2
▲배상덕(94/98북한) 2
▲배영인(81/85사학) 2
▲배주환(77/79전기) 2
▲백신기(80/84무역) 2
▲변문환(90/94영문) 2
▲서수일(63/71법학) 2
▲서인숙(90/94국교) 2
▲성범모(59/63법학) 2
▲성응일(63/67경제) 2
▲손경철(81/85전자) 2
▲손경희 2
▲손광국(67/71경제) 2
▲손순호(74/78승가) 2
▲송부용(78/82농경) 2
▲송영근(58/64정외) 2
▲송영배(64/71상학) 2
▲송영의(97/01수교) 2
▲송정환 2
▲송 철(70/72도공) 2
▲송희민(57/62정치) 2
▲신범철(55/62물리) 2
▲신성원(85/93무역) 2
▲신영태(81/88무역) 2
▲신재근(81/88경영) 2
▲신종섭(70/74철학) 2
▲심경용(67/71법학) 2
▲안병민(75/82전자) 2
▲안순한(66/70상학) 2
▲안재권(78/84토목) 2
▲안정구(70/77과교) 2
▲안한상(66/70국문) 2
▲양승렬(60/64연극) 2
▲양장석(62/66응생) 2
▲어관무(69/74경제) 2
▲어영일(59/63정치) 2
▲어훈경(77/84법학) 2
▲엄경섭(88/95건축) 2
▲엄하섭(94/97법학) 2
▲염진상(68/72법학) 2
▲오범석 2
▲오세익(70/74국문) 2
▲오완석(90/97농생) 2
▲오태갑(58/61정치) 2
▲우귀근(92/93불원) 2
▲운산스님(60/64불교) 2
▲원규식(73/75화공) 2
▲원영상(62/63경제) 2
▲유기준(61/65연영) 2
▲유동식(73/80식공) 2
▲유원식(62/64경제) 2
▲유준열(78/85경영) 2
▲유진희(86/91화공) 2
▲유해덕(55/61수학) 2
▲윤석제(59/65법학) 2
▲윤 영(77/81건축) 2
▲윤재민(81/85사학) 2
▲윤진표(78/80식공) 2
▲윤화석(70/74물리) 2
▲은민수(83/87전기) 2
▲이갑훈(63/67불교) 2
▲이경숙(77/80교육) 2
▲이규헌(65/69경제) 2
▲이기순(69/73국문) 2
▲이낙원(91/95정외) 2
▲이남형(59/64정치) 2
▲이 련(64/71국문) 2
▲이 만(71/74불교) 2
▲이문수(61/65사학) 2
▲이미숙(76/80연영) 2
▲이민식(96/98불원) 2
▲이민우(80/87토목) 2
▲이범주(96/99기공) 2
▲이보명(61/65생물) 2
▲이상은(95/99법학) 2
▲이상훈(77/80화공) 2
▲이상훈(92/99경영) 2
▲이선주(90/96의학) 2
▲이성균(68/75공업경영) 2
▲이성재(63/67경행) 2
▲이수길(61/65임학) 2
▲이승일(92/99회계) 2
▲이승창(62/69상학) 2
▲이신철(56/63법학) 2
▲이영규(71/75수학) 2
▲이영석(59/63국문) 2
▲이영진(90/96의학) 2
▲이용정(89/94회계) 2
▲이욱태(80/84불교) 2
▲이원겸(01/03문원) 2
▲이원영(67/70식공) 2
▲이은성(81/86건축) 2
▲이은종(63/68상학) 2
▲이을주(72/77화학) 2
▲이의송(84/88경영) 2
▲이장희(61/65농학) 2
▲이재권(77/83경제) 2
▲이재문(02/06경영) 2
▲이재봉(65/68물리) 2
▲이점원(72/79미술) 2
▲이제일(83/87경영) 2
▲이제호(69/73정외) 2
▲이종락(08/ 사원) 2
▲이종범(72/79전자) 2
▲이종연(85/92사학) 2
▲이종천(84/91통계) 2
▲이종한(70/77경영) 2
▲이좌범(64/70사학) 2
▲이준호(74/81화공) 2
▲이창구(61/65연영) 2
▲이철교(65/69불교) 2
▲이치중(65/71상학) 2
▲이택수(66/70경제) 2
▲이택수(57/61경제) 2
▲이한태(78/82화학) 2
▲이현기(60/64경제) 2
▲이현수(54/61임학) 2
▲이홍규(65/71농경) 2
▲이홍윤(82/86회계) 2
▲이효성(78/85산공) 2
▲임규택(57/61정치) 2
▲임석상(87/93사학) 2
▲임인규(78/81승가) 2
▲임종빈(74/81국문) 2
▲장대종(68/72경행) 2
▲장두옥(00/02사원) 2
▲장명수(01/03사원) 2
▲장인구(65/69상학) 2
▲장한목(72/79무역) 2
▲전병희(64/68경제) 2
▲전웅식(86/93경제) 2
▲전정도(04/ 불원) 2
▲전호련(78/82승가) 2
▲정광진 2
▲정규환(59/63경제) 2
▲정민혁(81/85법학) 2
▲정봉채(58/64법학) 2
▲정순도(74/81경행) 2
▲정연환(86/93행정) 2
▲정윤길 2
▲정인배(61/63경제) 2
▲정재락(89/95의학) 2
▲정재윤(73/77정외) 2
▲정찬익(81/88행정) 2
▲정창현(66/74경영) 2
▲정치근(82/86국사) 2
▲정태근(69/79도공) 2
▲조경석(61/64국문) 2
▲조기연(69/76통계) 2
▲조병노(71/78사교) 2
▲조병율(57/64국문) 2
▲조성실(58/60경제) 2
▲조양훈(69/73영문) 2
▲조영래(89/96일문) 2
▲조인식(61/65경영) 2
▲조일권(55/62법학) 2
▲조정식(77/84건축) 2
▲조희수(69/73행정) 2
▲주정호(92/96회계) 2
▲지용진(82/87경행) 2
▲진기헌(75/81정외) 2
▲채희석(90/94법학) 2
▲천병일(62/67화학) 2
▲천선우(79/84농경) 2
▲최경봉(57/62물리) 2
▲최경옥(85/89법학) 2
▲최관호(84/91경행) 2
▲최낙신(05/ 사원) 2
▲최미남(96/00선학) 2
▲최병옥(71/78통계) 2
▲최선덕(89/93경제) 2
▲최성호(81/89법학) 2
▲최수용(85/89전자) 2
▲최영대(00/01사원) 2
▲최원석(87/94행정) 2
▲최재곤(07/ 사원) 2
▲최종진(74/81승가) 2
▲최종태(57/61법학) 2
▲최주열(64/70상학) 2
▲최창렬(56/60정치) 2
▲최철수(69/73무역) 2
▲최효순(79/82회계) 2
▲피재억(82/90전자) 2
▲하림스님(88/96선학) 2
▲한영수(67/73경영) 2
▲한을희(70/77경영) 2
▲한인구(77/81정외) 2
▲허남결(84/87국민윤리) 2
▲현기스님(89/사원) 2
▲현승유(65/72경제) 2
▲현융기(81/89행정) 2
▲홍기영(76/83화공) 2
▲홍기운(82/86경영) 2
▲홍면유(68/72자동제어) 2
▲홍영자(64/66국문) 2
▲홍의식(86/94경영) 2
▲홍현구(78/85교육) 2
▲황규철(80/87회계) 2
▲황덕규(77/85경행) 2
▲황선구(66/73통계) 2
▲황윤찬(93/94사원) 2

▲무기명 2명 4

회비는 1년에 한 번 … 생각날때 바로 내주십시오

• 일반회원 년 회비 : 2만원 • 평생회비 : 30만원
• 임원 분담금
  ▪ 고문 :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사 : 10만원

• 납부방법
  ▪ 송금계좌 :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